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 (2025년 9월 호)



2025년 가을 학기, 창립 140주년, 미래를 향한 문을 열다



〈사진: 이경식 부총장 (국제협력)〉

2025년 새 가을 학기를 맞이하며 CST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2025년 가을 신입생 수가 90이 넘다!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이번 학기 신입생 수가 90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2025년 봄, 여름, 가을 학기에 입학한 한인 신입생의 수는 25명입니다.) 미국의 많은 신학교가 축소되거나 문을 닫는 시기에, CST는 신입생 입학률이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CST가 지향하는 사회 연민, 정의 그리고 소속감을 지향하는 가치관에 대해 공감하는 신학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진보적인 기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iversity, Equality, and Inclusive) 프로그램, 그리고 소외된 공동체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공격이 만연한 시대에, CST는 도덕적, 학문적 안식처로 부상했습니다. 우리는 불의에 맞서 침묵하기를 거부하는 학생들, 즉 단순히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LA 시내 거리로 나가 변화를 위해 조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신학 교육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이 사회에서 가르치고, 치유하며, 연민, 정의 그리고 소속감을 위한 운동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성, 전문 상담, 종교 간 교류 분야에서 새롭게 확장되는 프로그램들을 비롯한 저희의 학과 과정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세상의 도전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맞섭니다. 이는 거리와 성전에서의 사역을 위한 형성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CST가 충실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타협 없이 일어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그것을 만들어갈 만큼 용감한 사람들에게 속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러한 추진력에 발맞춰 더욱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문, 기부자, 교회, 그리고 친구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모든 분께 이 쇄신과 저항의 계절에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이러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우리의 사명을 더욱 강화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우리 공동체를 더 강화합니다. CST 가족의 일원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임 교수, 행정 지도자 임명

이번 학기를 시작하며 신임 교수 및 행정 지도자를 다음과 같이 임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사의 조치도 시대에 맞는 엄격하고 의미 있는 신학 교육을 강화하려는 CST의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Yohana Junker 박사는 Vice President for Institutional Research and Planning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분은 CST의 전략, 평가, 비전 등 기관 운영의 핵심을 이끌 예정입니다. 동시에 신학과 예술의 교차점을 탐구하는 ‘영성·문화·미술’ 부 교수직을 계속 맡아 교육을 이어갈 것입니다.



Blair Trygstad Stowe 목사는 Assistant Dean for Co-Curricular Development and Assistant Professor of the Practice of Ministry 직을 맡습니다. 블레어 목사는 교실 안팎에서 학생들의 통합적 학습과 전인적 성장을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Benjamin A. Groth 박사는 Assistant Professor of History and Religion and Louisville Institute Postdoctoral Fellow입니다. 2년간 루이빌 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CST 교수로서 활동할 것입니다. 미국 종교사 전문가이며 목회와 학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을 멘토링할 것입니다.



Melissa Roux MacKinnon 목사는 Interim Director of Field Education로서,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지역사회와 연결해 주며, 학생들이 새로운 시각과 변화를 경험하도록 이끌 예정입니다. Cal-Pac 연회의 감리사 직을 맡았던 목사입니다.



송민환 박사는 Assistant Professor of the Practice of Ministry로 임명되었습니다. 2024년 CST를 졸업한 송민환 박사는 그의 경험과 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목회적·신학적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외에 Doctor of Professional Counseling(DPC) 프로그램에 송민환 교수와 김지훈 교수가 총원되었습니다. 서울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과 협조 관계에 진행되고 있는 DPC의 다음 교수들은 CST의 Affiliate Professor로 등용되었습니다: 정푸름, 유상희, 김용환, 김정희, 그리고 김지훈.

Jeffrey Kuan 공동총장은 “이번 인사는 영적으로 뿌리 깊고 지적으로 담대한 지도자를 양성하려는 CST의 헌신을 잘 보여준다. 이들의 재능은 차세대 신앙 지도자 형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국제협력처 한국 방문

국제협력처의 김남중 교수/부학장(10월 20-29일)과 저(9월 20-10월 29일)는 올해에도 한국을 방문합니다. 여러 대학교와 신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며, CST 동문의 사역 현장도 방문할 것입니다. 올해 한국 총동문회 모임(회장: 최신성 박사)은 10월 24일(금), 인천 계산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목적은 유학생 모집, 대학/신학교와의 유대 강화, 한국 동문과 동문회 격려와 학교 소식 나누기, 그리고 모금 활동입니다. 학교의 운영과 장학금 모금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저나 김남중 교수께 연락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CST의 창립 140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이제 더 번창하는 CST의 미래를 향한 문을 엽니다. 이제까지 CST를 지키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는 모든 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달합니다.



〈사진: 2025년 5월 19일, CST 한인 공동체 종강 및 졸업축하 모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에 한인 학생들과 한인 2세들의 입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확대가 아니라, 정의, 연민, 그리고 소속감을 핵심 가치로 삼는 CST의 교육 비전 속에서 한인 공동체가 새로운 신학적 여정과 지평을 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2025년 봄학기부터 가을학기까지 총 25명의 신입생이 입학했으며, 지난 2024년 겨울학기 입학생까지 합하면 모두 36명에 이른다. 2025년 봄학기에는 목회, 리더십, 그리고 섬김(MAMLS) 과정에 1명, 전문목회상담학 박사(DPC) 과정에 3명이 합류했다. 이어 여름학기에는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DMin) 과정에 9명이 입학해 한국적 맥락과 더불어 디아스포라 이민 사회의 현실 속에서 갈등의 치유와 변혁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가을학기에는 전문상담 박사과정에 5명, 목회학 석사(M.Div.) 과정에 3명, 그리고 영성갱신, 창의성과 혁신, 실천신학 철학박사 과정까지 다양한 전공에서 학생들이 입학했다. 특히 한인 학생들의 진학은 특정 학위에 국한되지 않고 학문과 목회의 여러 스펙트럼에 고르게 퍼져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으로 이 학생들이 CST에서 신학적 성찰과 목회적 훈련을 쌓아, 교회와 이민 사회를 넘어 세상을 섬기는 학자들과 지도자들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입학생 명단은 아래와 같다.

2025년 봄학기

- Janice Sehyung Lee (MAMLS, USA) **Master of Arts in Ministry, Leadership, and Service**
- 이성지 (DPC, Korea) **Doctor of Professional Counseling**
- 홍수진 (DPC, Korea) 동일
- 김양미 (DPC, Korea) 동일

2025년 여름학기

- 이경석 (DMin, Korea) **Practical Theology of Conflict, Healing, and Transformation in Korean and Immigrant Contexts**
- 변종승 (DMin, Korea) 동일
- 김성중 (DMin, Korea) 동일
- 김찬주 (DMin, Korea) 동일
- 김상중 (DMin, Korea) 동일
- 김태형 (DMin, Korea) 동일
- 국성호 (DMin, Korea) 동일
- 이진협 (DMin, Korea) 동일
- 이광희 (DMin, USA) 동일

2025년 가을학기

- 이경숙 (DPC, Korea) **Doctor of Professional Counseling**
- 심은미 (DPC, Korea) 동일
- 임지숙 (DPC, Korea) 동일
- 정민혜 (DPC, Korea) 동일
- 유윤선 (DPC, Canada) 동일
- Mejin Leechor (MDiv, USA) **Ministerial Leadership**
- Joshua Nahm (MDiv, USA) 동일
- 김강민 (MDiv, USA) 동일
- 공문영 (DMin, USA) **Spiritual Renewal, Contemplative Practice, and Strategic Leadership**
- 여원석 (DMin, USA) 동일
- 서민우 (DMin, Korea) **Innovation and Creativity**
- 심정구 (PhD, Korea) **Doctor of Philosophy in Practical Theology**

이경식 수석 부총장은 이 같은 흐름을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새로운 물결(New Wave)”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CST에 입학하는 한인 학생들과 차세대 지도자들의 흐름은 단순한 학업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라며 “그들의 여정은 신학과 목회를 넘어 정의와 연민, 그리고 소속감을 구현하는 글로벌 신학 운동의 한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새로운 물결은 한국 교회뿐 아니라 이민 사회와 전 세계 신학의 지형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ST 한인 학생들과 2세 지도자들의 학문과 목회 여정은 단순한 학위 과정이 아니다. 그들의 배움은 세대와 문화,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는 신학적 도전이며, 새로운 가능성과 공동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이다. 이들이 교회와 이민 사회,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학자이자 지도자로 세워져 나가기를 응원한다.

하와이에서 클레어몬트까지: 이세형 학생의 신앙 여정



〈사진: 이세형 학생, MAMLS, S2025 입학〉

저는 Claremont School of Theology에 재학중인 Janice Sehyung Lee 입니다. 제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깊이 체험한 것은 열한 살 때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1985년에 하와이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책들을 모두 한국의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책 읽기를 매우 좋아했던 저는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어 책들이 몹시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탁 위에 놓인 한 권의 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너무 기쁜 나머지 밤에 손전등과 함께 몰래 침대에 가져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경에 책을 다 읽고 나니 온몸에 땀살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그 책을 통해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소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책은 제법 두꺼운 책이었고, 어머니의 친구분이 어머니를 교회에 초대하기 위해 빌려준 책이었습니다. 책 제목은 “할렐루야 아줌마”이었습니다 (최자실 목사저서). 그날 밤, 저는 책 속에서 묘사된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분이 저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혹은 이른 아침), 저는 제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열한 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제 믿음은 흔들림 없이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소년 사역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늘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지금이다’라는 강한 부르심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결단의 순간은 캄보디아에서 7년간 선교사로 사역하고 미국으로 돌아온 2024년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새롭게 부임한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돕는 동시에, 연합감리교회 해외선교부(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상하게 만나는 많은 분들이 저를 이미 안수받은 목회자로 여기며 ‘목사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저는 평신도라고 정중히 설명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분이 제게 “이것이 하나의 부르심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는 진지하게 기도해 볼 것을 권했습니다. 오랜 기도 끝에,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운 여정으로 부르시는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신학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멀리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Claremont School of Theology(CST)가 제가 가고 싶은 학교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저희 가족이 캄보디아로 파송되었을 때, 하기와 감독님은 Cal-Pac 연회의 감독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CST의 리더십으로 섬기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CST에서 첫 학기를 마쳤고, 올 가을에 시작될 두 번째 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CST의 교수님들은 신학적 지식이 풍부하면서도 친밀하게 소통하십니다. 비록 온라인 수업이지만, 동급생들과 교수님 간의 활발한 소통 덕분에 배움은 매우 적극적이고 유익했습니다. 저는 CST의 학생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앞으로의 배움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제가 준비되고 더욱 유용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사진: 2025년 7월 27일, 영락 장학금 수여식 후 단체사진>

나성영락교회 장학재단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담임목사)는 지난 7월 27일 ‘장학주일’을 기념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며 2025년 영락 장학금 수여식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예배는 기부자, 수혜자, 장학위원회가 함께 참여해 감사와 헌신의 의미를 더했다. 설교 후 진행된 수여식에서는 장학 위원회의 주관으로 총 83명의 학생에게 18만 2,000달러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안나 장학금을 수여한 CST의 이해인 신학생이 소감을 발표하며 학문과 신앙의 길에서 받은 지원을 바탕으로, 앞으로 교회와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나성영락교회의 장학사업은 1982년부터 시작되어, 학업적 우수성과 재정적 어려움을 동시에 지닌 한인 기독교 학생들을 지원하고, 기독교적 지도력과 학문적 성취를 격려하기 위해 지속되어 왔다. 나성영락교회는 앞으로도 장학사업을 통해 미래 세대를 지원하고, 신앙과 학문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재들을 길러 나갈 계획이다.



<사진: 2025년 8월 16일, 안나 장학금 수여식 후 단체사진_정중앙:정정숙 회장>

안나장학재단

안나장학회(정정숙 회장)는 42주년 기념 장학금 수여식을 지난 8월 16일 나성영락교회 친교실에서 진행했다. 총 24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수여했다. 한국과 Laos에 거주하는 CST의 학생 이규운과 심은미는 수여식에 참여할 수 없어서, 축사를 맡은 이경식 부총장이 대신 수여하였다. 안나장학회 임원은 2024년 CST의 새로 이전한 캠퍼스를 방문하였으며,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CST 학생들을 위하여 2년 연속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정숙 회장은 학생들에게“작은 빛은 안나장학회의 정신입니다. 각자가 작은 빛이 되어 우리 주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희망으로 세상을 감싸고 앞길을 밝히는 여러분”이 되라는 격려의 말씀을 나누었다.



<사진: 안정섭담임목사가 장학금을 전달하고 기쁨을 나누고 있다.>

LA연합감리교회 장학재단

LA연합감리교회(안정섭 담임목사) 는 8월 24일 주일 예배 중 이경식 수석 부총장에게 1만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위원회 위원장 고계홍 장로는 “2005년 교회 설립 100주년을 기념해 설립된 장학위원회는 신학생과 교인 자녀를 위한 장학금을 꾸준히 지원해왔다”며 “신학교 장학금은 미래 목회자를 양성하는 소중한 사역”이라고 강조했다. 본 교회는 2018년부터 CST에 매년 1만 달러를 기부하고 있다. 현재 130만 달러 규모 기금의 연 8% 수익률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본토에서 가장 오래된 본교회는 차세대 목회자 양성을 급선무로 여기고 있다.



클레어몬트

2025 한국동문회



2025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한국동문회 정기 모임에
동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2025.10.24(Fri) 11:00 am
계산중앙교회 (회장 최신성 목사 시무)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282

문의 | 서기 이상수 010-6773-1203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클레어몬트

2018.10.25 pm 5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한국 동문회 총회

2025.10.24(Fri) 11:00 am

배움에서 섬김으로: 클레어몬트 이후의 여정



〈사진: 민학기 목사, M.Div. '20〉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클레어몬트를 졸업한 지 어느덧 5년이 되었고, 이제는 목회 현장에서의 시간이 학교에서 보낸 시간보다 길어졌지만, 제 마음속 '제2의 고향'은 여전히 클레어몬트입니다.

저는 현재 위스콘신 연합감리교회(Wisconsin Conference of the UMC) 소속으로 목회하고 있으며, 세 개의 영어 회중 교회로 이루어진 '윌로우리버 연합감리교회(Willow River UMC)'에서 담임목사로 사역 중입니다. 올해 감사하게도 연회로부터 제 사역을 인정받아 정회원 장로 목사(Elder in Full Connection)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클레어몬트에서의 시간은 제 목회의 밑바탕을 다지는 소중한 시기였습니다. 단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예배를 기획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경험은 특별했습니다. 특히, 지도교수님이셨던 캐시 블랙 교수님(Dr. Kathy Black)의 지도로 예배위원회(Worship Council)의 일원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15분, 크레스지 채플(Kresge Chapel)에서의 예배를 함께 기획하고 준비했던 시간은 깊은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김남중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신학자, 목회자, 평신도들과 함께 삶과 예술 그리고 이야기를 예배 안에 담아내고자 했던 예배 콘퍼런스는 저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새롭게 성찰하게 한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유학 생활 중 지칠 때면 이경식 부총장님의 따뜻한 격려는 제게 큰 힘이 되었고,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오늘의 제 목회 철학을 형성하는 데 깊은 뿌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지역 교회 목회 외에도, 위스콘신 연회 세계선교부(Board of Global Ministries)에서 총무(Conference Secretary of Global Ministries)로 섬기며,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환대하는 사역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러한 사역을 인정받아, 연합감리교회 교회와 사회부(Board of Church and Society)로부터 Perry Saito Award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게 되었습니다. 이 상은 정의와 평화를 위한 사역에 이바지한 이들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해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며 열린 마음으로 걸어가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소외된 이들의 고통을 나와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목회를 꿈꿉니다.

오래된 서랍에서 꺼낸 미래를 위한 지혜, 성서



〈사진: 조내연 목사, Ph.D. '22〉

안녕하세요, 조내연 동문입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목사로, 현재 신길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3년 전, 존경하는 마빈 스위니, 제프리 콰, 존 버퀴스트 교수님의 지도로 이사야서 56-66장 연구로 박사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습니다. 현재는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에서 특임교수 겸 교목으로 채플 운영, 교양 수업, 학생 사역, 교직원 기도회 인도 등을 통해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서대학교 신학과에도 출강하여 후학들에게 구약 신학과 예언서, 역사서 등을 가르치며, 성서의 말씀을 삶과 목회 현장에 적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사역과 학문적 고민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날의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성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의 고속 성장과 문화적 발전 가운데 청년층의 종교 인구는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경험했거나 경전을 읽어본 학생이 드물다는 사실은, 종교가 점차 사람들의 삶의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종교 문맹’ 현상은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온 경험과 기억의 유산을 잊게 하고, 인간 사회 각 분야에 미친 종교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리스도교 성서를 보편적인 인문 고전으로 접근하는 교양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특정 종교인을 길러내는 것을 넘어, 성서를 인류의 집단 기억이 담긴 기록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인문 고전으로서 성서를 읽는 것은, 고대 인류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생존의 지혜를 찾았는지 발견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서가 시대를 넘어, 모든 사람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공존과 연대의 지혜를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독자들이 텍스트와 공명하며 능동적인 해석자로 설 때, 현실의 모순과 갈등을 넘어설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서는 인류의 상호 연대와 정의를 회복하는 중요한 고전으로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그 가치는 더 강조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성서는 현대인들에게 마르지 않는 문화적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끈 콘텐츠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성서 속 권선징악과 구원의 서사는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감동을 주며 새로운 창작의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서가 더욱 깊이 사랑받는 날을 소망하며 글을 맺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2026년 기부 현황

차세대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귀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9월 4일 기준 -

이경식 부총장
육성수 목사
보라매열린교회 (육성수 담임목사)
이종오 박사
이한슬 박사와 이레이첼 박사

* 성함은 기부일자 순입니다

기부총액(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8월 6일 기준): **\$32,000**

- KEF 잔액(1990.03. - 2025.8.):	\$2,511,654
- KLS 잔액(2018.10. - 2025.9.):	\$811,998
- General Fund (2024.03. - 2025.8.):	\$13,728

*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Center for Korean American Ministries

- 2025년 1월부터 2025년 8월 기준 -

개인 후원

이병준 회장
이상영 목사

단체 후원

남가주 한인 여선교회 연합회 (Sue Kim 회장)
드림교회 (최요셉 목사)
서부지역연회 (Grant Hagiya 감독)
예수동행교회 (안정섭 목사)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남재현 목사)
월셔연합감리교회 (이영성 목사)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영 목사)
크리스찬위클리 (조명환 목사)
Cal-Pac 연회 한인 코커스 (이석부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이창민 목사)

* 성함은 가나다 및 알파벳 순으로 나열한 명단입니다.

기부총액(2025년 1월부터 2025년 4월 기준): **\$14,200**

*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